

禮山文化院報

阮堂先生浚天一笠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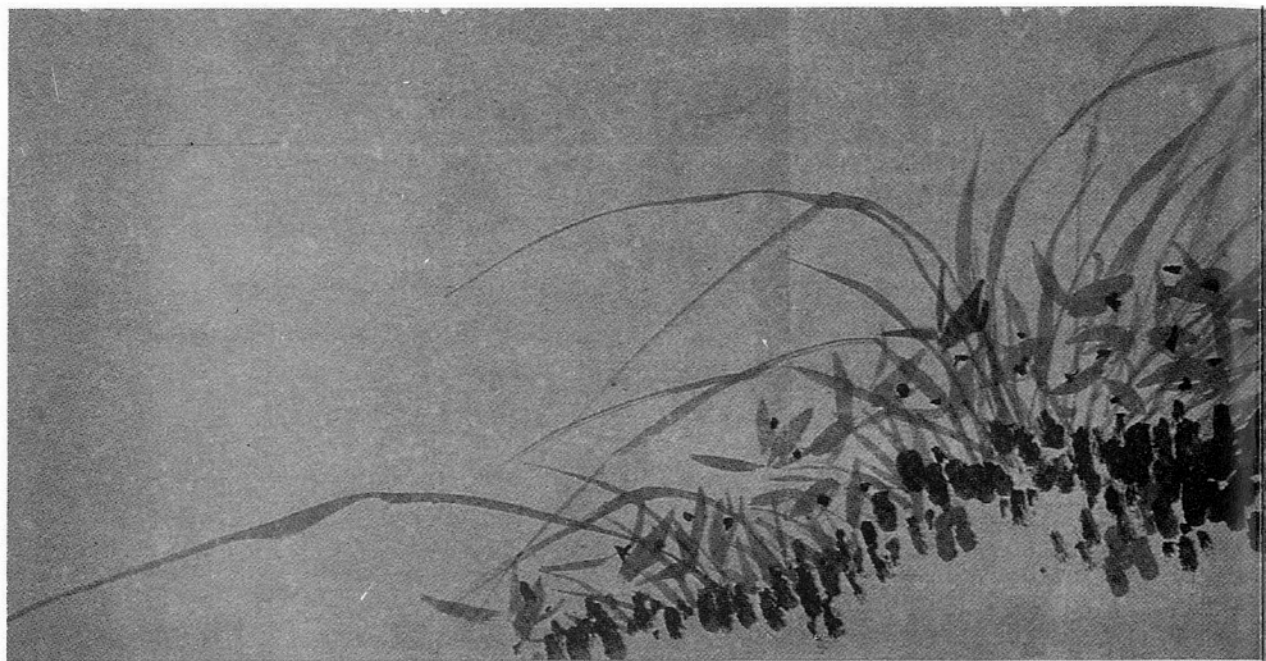
許小痴筆

小浪潭書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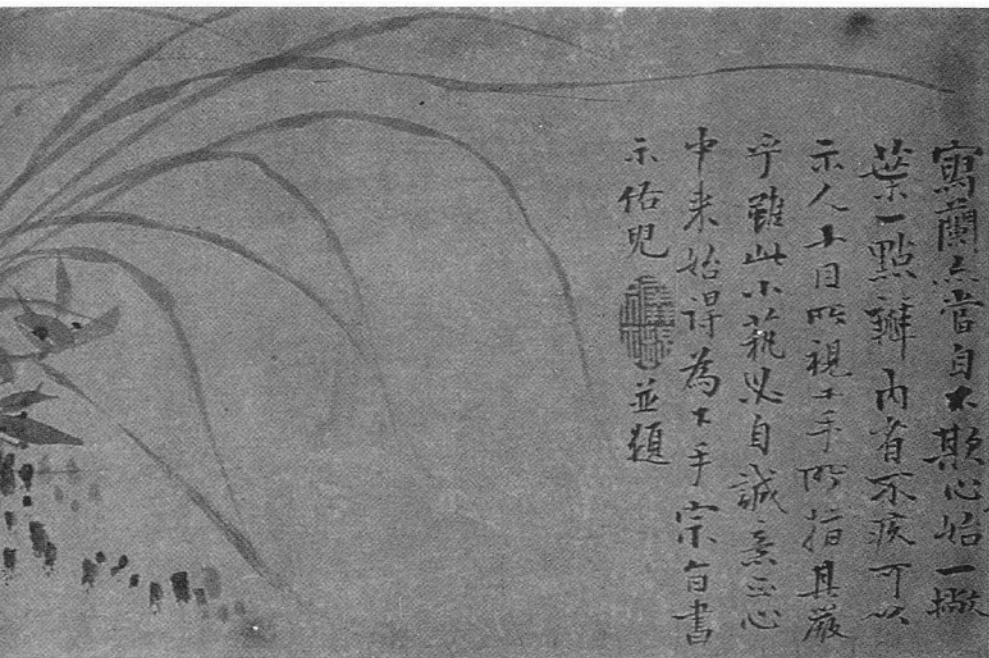
特輯

秋史筆訣(續)

烏山縣·任存城·今勿縣



寫蘭三言自不欺心始一撇
葉一點辨內省不疚可以
示人耳目所視一手所指其嚴
守雖此小紙必自誠意云心
中來始得為下手宗旨書
示佑兒 龔 並頌



紙本水墨 22.8 x 85 cm

난초를 그리는 때에는 자기의 마음을 속이지 않
은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있으나, 꽃술 하나라도 마음속에 부끄럼이 없
게 된 뒤에 남에게 보여야 한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시하고 모든 사람의 손이
다 지적하고 있으니 이 또한 두렵지 아니한가
이것이 작은 재주이지만 반드시 생각을 진실하
게 하고 마음을 바르게 하는데에서 출발해야 비
로소 손을 댈 수 있는 기본을 알게 될 것이다. 아
들, 商佑에게 써 보인다.



紙本水墨 26.7 × 33.2 cm

난초는 모든 향기의 원조다. 董香光(명의 董其昌)은 그가 거주하는 집에 「香祖庵」이라고 써 붙였다.

秋史의 心意 무르녹은 作家期待

“作品의 우열은 그의 人品에 깊은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秋史 金正喜先生도 그의 書畫觀은 가슴속에 청고고아한 뜻이 있어야 하며 그것이 文字香과 書券氣에 무르녹아 손끝에 피어나야 하는 至高한 理念美의 구현에 근본을 두어야 한다고 했다.

文人畫에 있어서도 기법 보다는 心意精神을 존중하는 畫風에서 예서를 쓰듯이 필묵의 아름다움을 주로하여 枯淡하고 간결한 필선으로 心意를 노출하는 文氣있는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했다. 이에 蘭도 隸와 상통됨으로 법규에만 억매지 말고 고상한 風度(神韻)가 앞서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그래서 作品을 評定하는데 있어서 氣韻,(氣品과 品格)이 상통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서 예사 숨씨로는 도저히 본 뜨기 어려운 것을 神品이라 하고 技藝가 뛰어나고 意趣가 裕如해서 모든 것이 알맞게 배치된것을 妙品이라 하며 原形과 흡사 하면서 法度에 어긋나지 않는 것을 能品이라 한다.

科生의 作品 評定에 앞서 秋史先生追慕書藝科場은 先生의 書藝에 대한 心意가 깃든 作品을 찾기 위한 科場이기도 하다.

그러하기에 先生의 生辰日(1786年 6月 3日 이 陽曆 6月 28日)을 택해서 墓前에서 茶禮로 先生의 學德과 書藝의 心意를 되새기고 科場에 임하도록 마련했다.

科場의 心意 또 이러하기에 秋史先生의 書藝의 진수에 무르녹아진 書畫人이 나와 주기를 合掌한다.

李 恒 馥

四君子의 精髓

詩書畫는 일치한 선비의 벗

李 鍾 祥(서울大學校美大教授)

사군자(四君子). 선비들의 기개를 일깨우며 사랑을 받던 매화(梅花)국화(菊花) 난초(蘭草) 대나무를 말한다. 고산(孤山) 윤선도(尹善道)가 노래로 찬양했듯 사군자는 선비들의 친구로 높은 뜻을 담아왔고 그림에서도 오래도록 사랑받아온 소재였다. 동양의 사상을 집약하고 있다는 사군자는 그 깊은 멋이 선비의 위상을 또한 표현해 주고 있다 하겠다. (편집자)

高麗때부터 그려

요즘 수묵화(水墨畫)와 사군자(四君子)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사군자를 직접 배우려는 열의도 높다.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양(量)이 많아지다보면 질(質)이 떨어 질수도 있듯이 우려되는 것도 없지않다. 만약 검정물감으로 그리는 것이 수묵화요, 4가지의 식물을 그리는 것이 사군자라고 안일하게 믿어 그속에 담긴 정신세계를 알지 못한채 형식만을 흉내낸다면 크게 잘못된 것이다. 비록 사군자가 중국에서 연원된 것이라고는 하지만, 이 화목(畫目)은 이미 고려때부터 우리 조상의 정신속에 뿌리를 내려 독특한 우리 그림이 된지 오래다.

우리는 흔히 사군자를 매란국죽(梅蘭菊竹)이라고도 하지만 (난죽매국)으로 순서를 바꿔 부르기도 한다.

언뜻 보기에는 별스럽지 않은 문제같지만 실을 깊은 의미가 담겨있다. 예부터 동양인의 생각(思考)과 예술에서는 시간

과 공간이라는 두개의 개념을 상대적으로 보지않고 하나로 조화시키려는 일원적 가치관을 보여왔다.

음악이 시간예술이고 회화가 공간예술이라는 현대미학(美學)이론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時空 조화된 思想

우리가 사군자를 (매란국죽)이라고 순서짓는 까닭은 사계(四季)가 분명한 환경아래서 봄(春=東) 여름(夏=南) 가을(秋=西) 겨울(冬=北)의 시간적 변역(變易)을 의미하는 것이며 (난죽매국)이라고 순서 짓는 것은 남(南=老陽) 북(北=老陰) 동(東=小陽) 서(西=小陰)의 공간적 불역(不易)을 의미하는 습화(習畫)의 순서이기 때문이다.

동서남북의 방위와 춘하추동의 계절을 하나의 시공(時空)으로 일원화 시켜 총족될수 있는 그림이 사군자인 것이다.

이러한 정신적 바탕아래 현세적으로는

유교적 선비사상의 충절(忠節)을 의미, 매(仁) 국(義) 난(禮) 죽(智)을 높여 보는 것도 우연이 아니다. 또 조형적인 형상성으로 파악할때 온세상(萬類)의 가시(可視)적 현상(現象)은 곡선(蘭) 직선(竹)의 음양으로 대별되며, 그 중간자(中間子)인 반곡선(半曲線=菊), 반직선(半直線=梅)으로 나눌수 있다. 따라서 동양화를 공부하려면 이같은 기본적인 조형실습을 통하여 높은 정신세계를 터득해야 할것이다. 그렇다고 사군자를 마치 산수화나 인물화를 그리기위한 기초과정처럼 이해하면 큰잘못이다. 사군자는 그자체가 기초가 되면서도 곧 완성(完成)인 독립된 화목(畫目)인 것이다.

造形과 哲學이 응집

사의화(寫意畫)의 정수인 것이다. 잡다한 화목의 동양회화를 사군자 하나로 집약, 모든 조형양식과 예술철학을 응집했다해도 과언이 아닌것이다.

이것은 거대한 우주을 내다보여주는 열쇠구멍과도 같은 이치로 사군자를 공부한다는 것은 동양화의 전부를 보는 것과도 같다. 일찌기 중국의 왕유(王維)는 우주의 만상(萬相)을 집약해서 수운묵장(水暈墨章)으로 표현하고 그림그리는 방법중에서 수묵화가 으뜸이라고 했다.

수묵은 단순한 흑색(黑色)이 아니라 만상의 합색(合色)이며 또 무채(無彩)인 것이다. 묵(墨)을 색으로 말한다면 까마



紙本水墨 32.2 × 41.8 cm 1848年

특한 우주의 현색(玄色)이랄수 있다.

이러한 수묵화는 일필휘지(一筆揮之)로 완성되는데 의미가 있다. 이것은 피나는 노력으로 법도를 뛰어넘는데서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책자(書卷)의 기(氣)와 문자의 향(香)이 없어서는 먹물로 비질한 것에 불과하다.

國亂때 특히 발전

이러한 수묵의 정신이 만들은 예술이 곧 사군자 화목이다. 이와같이 수운묵장이 지니는 단순화와 집약화의 일회성(一回性)은 불립(不立)문자의 선(禪)의 경지와도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표현의 주관(主觀)주의사상은 이상적 관념주의에 빠져들게 됨으로써 많은 문인일사(文人逸士)들이 자기의 심회를 토해내는 그릇으로서 사군자를 그려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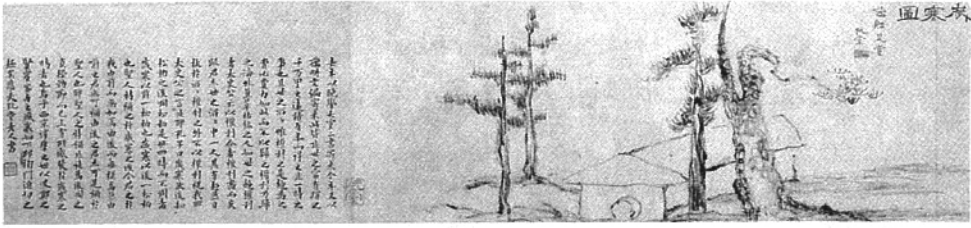
사군자가 발전되는 주기를 보면 대체적으로 정권의 혼돈기와 교체기임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불사이군(不事二君)의 유교적 충절사상때문이기도 하다. 송(宋)말 정사초(鄭思肖)가 오랑캐(元)에게 나라를 빼졌다하여 뿌리뽑힌 난을 그려놓고 더럽혀진 땅에 난을 심지않겠다고 울분을 표현한 것이나, 대한제국의 민영익(閔泳翊)이 왜놈에게 나라를 뺏겨 울분한 나머지 중국에 망명하여 오창석(吳昌碩)과 교우하며 충절을 의미하는 대나무를 집뒤에 심고 천심죽재(千尋竹齋)라 이름하고 난을 그리며 망국의 한을 풀은 것도 모두 이때문이다. 사군자중에 묵죽이 중국에서 초당(初唐)때 우리나라에서

는 고려때 그려졌다고 하니 사군자중에 대나무 소재가 가장 오래된 것임을 알 수 있다.

竹梅蘭菊 순으로

대나무는 사시에 푸르려 곧고 굳은 절개가 충의열사에 비유되고 직선적이며 남성적인 기개가 호연지기하여 많은 문인 문객들이 즐겨그렸다. 윤선도는 오우가에서 「나무도 아닌 것이 풀도 아닌 것이 곧기는 뉘시기며 속은 어이 비었는가 저리고 사시에 푸르니 그를 좋아하노라」고 하여 대나무를 벗삼았고 서거정(徐居正)은 사가집(四佳集)에 「굽지고 얹고 곧고도 발라서 천지간에 맑기가 으뜸」이라고 대나무의 기상을 상찬했다.

추사(秋史)의 뇌운묵죽화(雷雲墨竹畫)에도 우리나라에서는 묵죽을 전공하면 화과의 품위가 산수화보다 높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묵죽을 중시하여 초기에 수문(秀文) 안견(安堅) 박팽년(朴彭年) 등이 한국적인 묵죽도를 남겼고 중기의 이정(李璣)에 이르러 좌수(左手) 묵죽의 높은 품격의 작품을 남겼다. 후기에는 거의 그의 양식을 토대로 하여 김세록(金世錄) 유덕장(柳德章) 조희룡(趙熙龍) 등이 뛰어난 한국적 묵죽도를 그렸다. 대나무 소재 다음으로는 매화가 그려졌는데 당(唐)초기에는 역시 화훼로서 구록진채(鉤勒眞彩)로 그려졌을뿐 독립된 화목은 없었던 것을 이약(李約)이 처음으로 매화만을 그렸다하며 오대(五代)의 등창우(藤昌祐) 서희(徐熙)가 또



紙本水墨 23.3 × 108.3 cm

한 매화를 그렸으나 모두 쌍구법(雙鉤法)이었다. 서승사(徐崇嗣)에 이르러 몰골매(沒骨梅)를 그렸고 진상(陳常)이 비백채화매(飛白彩花梅)를 그렸으며 최백(崔白)이 묵매를 시도하여 석중인(釋仲仁)에 이르러 본격적인 묵매와 화매취상설(畫梅取象說)의 화매론이 나온 것이다.

우리나라서는 고려의 정지상(鄭知常)과 차원부(車原頰)등에 의해 그려졌으며 조선의 어몽룡(魚夢龍) 조희룡(趙熙龍)등이 묵매에 뛰어났고 특히 김수철(金秀哲)은 한국적인 독특한 묵죽양식을 창출하였다. 대작으로는 오원(吾園)의 백매십곡병(白梅十曲屏)이 꼽힌다.

蘭, 蘇末에 본격화

묵매다음으로 난이 그려졌는데 이또한 다른 화훼와 섞여 구름진체로 그려져 오던 것을 송말원초(宋末元初)의 정소남(鄭所南) 조이재(趙彝齋) 관중희(管仲姬)등이 묵란을 그렸고 그후에 마린(馬麟) 백양산인(白陽山人)이 독특한 사의를 보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터 묵란이 그려졌는지 확실치 않으나 일반 화훼와 곁들여 산발적으로 구름법에 의해 그려졌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사군자

로서 면모를 갖추어 묵란이 본격적으로 그려진 것은 이조말기의 김정희(金正喜) 이하응(李晙應) 정학교(丁學教) 임양재(林樑材) 김응원(金應元) 민영익(閔泳翊)등에 의해서였다.

특히 완당의 부작난도(不作蘭圖)가 보여주는 한국인의 무위지경(無爲地境)은 시서화(詩書畫)일치의 신운(神韻)을 한껏 보여주는 희대의 걸작이 아닐수 없다.

墨菊은 貞節을 표상

마지막으로 국화가 사군자로 그려졌는데 지금도 국화는 묵국(墨菊)으로 그려지기보다는 채국(彩菊)을 많이 그리는 것처럼 소재가 일찍부터 다루어져 화훼 금문(錦文)장식문등 수없이 보이나 묵국으로 정절을 표상하는 덕으로서 덕목삼아 사군자의 위치에 오른 것은 몹시 일천하다. 「선화화보(宣和畫譜)에 송(宋)의 황전(黃筌) 조창(趙昌) 서희(徐熙)등이 채국을 그렸는데 남송 원(元) 명(明)에 이르러 조이재, 이소(李昭)등이 묵국으로서 능히 오상고절(傲霜高節)을 표현하였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규방작가들에 의해 일찌기, 화훼와 곁들여 채국이 그려져왔으나 묵국은 말기에 이르러서야 묵객들이 다루게되었다.

秋史先生の 書訣(續)

墨法の 三昧境 체득후 筆法을 말한다

錢香樹가 論作한 글에 이르기를 用筆함에 있어서는 모름지기에 重하게 해야하며 重하게 해야만 厚해지고 古風이 생긴다 하였으니 이 말은 文筆의 三昧境을 깊이 체득하였다고 하겠다.

나는 書法도 또한 이와 같다고 하겠다. 王麓臺가 秋山清爽圖에 自題하여 말하기를 글씨 쓰는 법은 古法에 있는 것도 아니요. 나의 솜씨에 있는 것도 아니지만 또한 古法도 나의 솜씨의 밖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하지만 筆端의 金剛杵는 자기의 잘못된 버릇이나 잡된 기운을 전부 탈피하는데 있다 하였으니 錢香樹가 말한바 重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金剛杵의 본뜻이다.

溫紀堂도 또한 말하기를 我師께서도 매

번 글씨를 쓸때마다 腕과 비의 힘을 함께 다 해야 한다 하였으니 三君(錢香樹, 王麓臺, 溫紀堂)의 말을 종합하여 관찰해보면 可히 用筆에 담겨있는 본뜻을 얻을 수 있으리라.

墨은 濃, 淡, 乾, 濕을 論할 필요도 없이 중요한 것은 半點의 烟火같은 기운이 보이지 않아야 한다.

董思白이 草書手劄에 말하기를 사람들이 다만 그림에만 墨氣가 있는 것을 알 뿐이지 글씨에도 또한 墨氣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알지 못하고 있으니 可히 董思白의 自信있게 글로 쓴 것을 보아 역시 墨法이 있음을 짐작케 한다. 무릇 墨쓰는 法은 董氏의 뜻을 따라 이용하면 아마도 俗態를 벗어날수 있을 것이다.





紙本墨書 24.4 × 45.6 cm

右論한 筆과 墨에 대하여 東人들은 언제나 筆法에만 區區하게 致力할뿐 墨法에 대해서는 求學하는 경향이 없다.

近日의 筆訣에도 다들 筆法만 말할뿐 墨法에 대해서는 一語도 言及함이 없다.

시험삼아 紙上에 글씨를 보라 오직 墨法이 있을 뿐이니 반드시 墨法의 三昧境을 체득한 후에야 可히 筆法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七十二 鷗草堂 漫書

渚河南 書評 (渚河南의 글씨를 評함)

渚河南의 글씨는 史記에 陵해서 나왔다는데 글씨의 획이 거칠며 가늘고 굳세며 딱딱한 모습이 마치 西漢때 銅筒에 쓴 글씨와 같다.

東坡書評(東坡의 글씨를 評함.)

東坡의 글씨는 마치 큰 공이 한길에 나타나면 百獸들이 무서워서 엎드리는 형상과 같다. 그분의 崇陽帖眞蹟을 살펴 보면 萬力天氣가 나타나 있으며 그의 墨色은 짙은 漆과 같고 點과 波임등 墨이 멈춘 곳 마다에는 전부 다 漆珠와 같은 흔적으로 손가락으로 밀어 쓴 것 같다. 이것이 古人의 墨쓰는 법이 본래 이와 같은 것이다.

近世의 名家로 石庵이나 蘇齊도 다 墨法의 秘妙함을 傳授한 사람들이다.

老鷗도 卷頭に 題하노라.

(田 溶 國 國譯)

近世名家右庵蘇
齋皆傳墨墨之秘妙

老鷗又題
卷頭



原本을 影印했습니다.

25 쪽 에서부터 右로 엮었습니다.

墨色如濃茶點

波留墨處皆作赤

珠痕撲於指日走古

人墨法亦自如

東坡書如老態
當途百獸畏伏
嘗見其嵩高易帖真
蹟有萬力千氣其

褚河南書出於
史陵疏二瘦勁凍
似西漢銅甬書

墨而己必得筆

三味然後乃可

言筆一可七十二

鷗州堂書



之如近日筆法
皆以筆為說而
無一語及墨者
試看紙上之字

意便超矣

右滿筆墨樂

人上母於筆法區

致力全不向筆法求

氣可見文敏自

信履志只志墨凡

州墨得筆筆氏之

州書手卷有云

人但知畫有筆

不知字亦有墨

墨不論濃淡乾

澀要一不帶半點

烟火氣筆思百

一、下筆腕解皆

力觀三君之言可

得用筆之妙矣

所謂重印金剛

杵之意是溫純

堂名云我啼母

我手之外筆
端金剛杵在腕
中習氣香梅

山晴藥園云本
在古法不在我
年而又不出古法

深得文之三昧
余謂畫亦如此
麓畫自題秋

錢香樹論作又



玉用筆須重二

別厚而古此語

장 승 제 발 굴

- 대흥면 하갈신리에서 -

장승은 예로부터 우리 민족의 삶과 함께 공존해 오면서 바로 신적인 존재로 이어져 내려왔다.

신적 존재의 형태는 솟대, 산신당, 당산, 서낭당 등 수많은 종류가 있으나 장승은 그 중 하위신으로 동네 입구에 자리하여 항상 민간과 밀착 되어왔다.

인간의 힘으로는 모든 재앙과 악귀를 쫓아 낼수가 없다고 생각하여 신력이나 신의 위력을 빌어 모든 재앙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우리 인간의 원초적인 민간 신앙의 표본이기도 하였다.

이렇듯 장승은 만신으로서의 역할을 하며 우리 민족사에 절대적인 존재이었음을 알수 있으며 이에 대한 수많은 전설이나 민담은 오늘에 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우리고장 예산에도 많은 곳에 장승이 세워져 있었고 여러 곳에서 장승제를 지냈다는 말이 있으나 오늘날 전부 인멸되고 흔적조차 찾을수 없었던 차에 대흥면 하갈신리에 장승제가 이어져 온다는 제보를 듣고 92년 2월 9일 장승제가 치러지는 현장을 찾아 사진촬영과 비디오 촬영으로서 그 면모를 담았다.

이 장승제는 지금부터 360년전인 조선조 인조 10년 (1632)부터 산제를 지내 왔는데 제사는 상당, 중당, 하당 3당을 설정하여 상당은 북방 금봉산밑에서 산제당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며 중당을 본동의 서북방 산록에서 하당은 동남방 마을 입구에서 장승제를 지내는 특이한 제사이다.

산제당에서는 금봉산 산신령께 일년내내 무병장수, 안가태평하고 농사대풍 소원성취를 빌고 중당에서는 풍재, 수재, 화재를 추방하는 제사를 축원하고 하당에서는 동남방을 수호하는 [東方靑帝大將軍]의 장승을 세워 놓고 동네에 들어오는 악운과 재앙을 막

아 달라는 축원제로 일명 장승제를 지낸다.

이행사를 하기 위하여 매년 정초에 정일을 택일하고 생기복덕을 보아 도화주를 선발하여 제사준비에 들어가며 제일에는 동민이 총동원 되어 농악을 치고 각계당을 순회하며 청소을 하고 한쪽에서는 生松을 베어다가 장승과 오리를 제작하는데 장승과 오리는 음양의 상징이라고 하는데 완성한 장승과 오리는 농악을 치며 나아가 지정된 장소에 세운다.

이에 예산문화원에서는 장승제의 원형을 보존 재현 하며 전승유래를 담은 책자를 간행하고 오가면의 국사당보놀이를 발굴하고자 각계 주민들과 접촉을 벌이고 있다.



문화가족 윷놀이

— 문화원 씨클 한자리에 —

문화원 씨클들인 문화가족이 2월 29일 한자리에 모여 전통놀이인 윷놀이를 함으로써 새해 보람찬 한해를 맞는 각오를 새로이 하였다.

이 윷놀이는 전통식으로 명석을 깔고 밤나무 윷으로서 즐거운 한때를 보냈는데 이날 참석한 문화가족은 전통공예동인회, 매헌합

창단, 극단[소란] 예산사우회, 예산서예연구회, 예산향토사 연구회, 문화공보실팀, 새마을과팀, 문화원 임원진등이 참여하여 우승에는 문화공보팀 준우승에는 예산향토사 연구회 3등에는 예산전통공예동인회가 차지하였다.



청소년 어울마당

— 여가활동및 취미생활 —

청소년들이 평소 학교 직장등의 고유영역에 얽매인 생활로 건전한 여가활동이나 취미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임으로 청소년들이 젊음을 발산하고 함께 어울려 우리의 소리, 가락, 율동, 시, 예술품등을 보고 익히며 건전놀이를 즐길수 있는 기회와



윷 놀 이

장소를 정기적으로 제공할수 있는 어울마당을 개설하여 매월 넷째 토요일 오후 문화원 광장에서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처음 행사인 2월에는 2월 22일 오후 3시부터 「전통놀이 군내 고등학교 대항 윷놀이」을 예산전통공예동인회의 지도하에 전통



시 상 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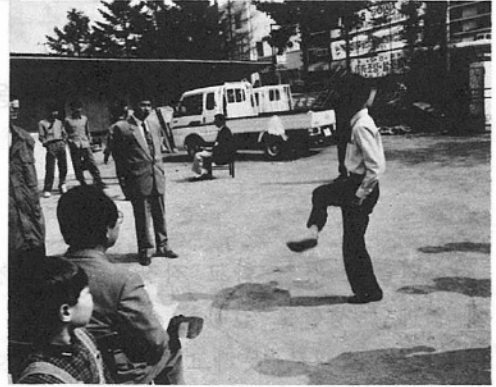
놀이를 재현하는 한마당을 마련 하였는데 1등에는 대흥고등학교 2등에는 삼교고등학교가 찾아 하여 푸짐한 상품을 받았다.

3월달에는 3월 28일 오후 2시에 「제기차기 및 연만들기 프로그램으로 연만들기는 최복성씨(덕산면 읍내리)가 지도하여 전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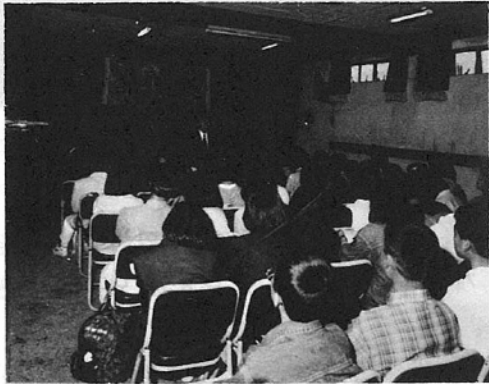


연 만 들 기

연을 각자 만들어 보았으며 제기차기에는 고등부 1등에 대홍고 2등에는 중앙고 3등에는 예산고가 찾아 하였고 중등부 1등에는 대술중 2등에는 광시중 3등에는 삼교중이 찾아 하였고 고등부 개인상에는 권오준 중등부 개인상에는 김광식군이 찾아 하여



제 기 차 기



가 곡 배 우 기

처음 만들어 보는 연만들기에 관심을 쏟았다.

4월 행사는 「건전가요 및 가곡배우기」로 4월 28일 오후 2시 부터 매현 합창단 단원들이 직접 지도하는 노래배우기를 즐기는 하루가 되었다.

5월에는 「연극놀이 및 연극기법」으로 극단「소란」이 지도 하였는데 직접 연극공연을 함으로써 연극의 진면목을 발견하는데 노력을 경주하였다.

5월에는 전통놀이로써 「사물놀이」를 선택하여 청소년들이 즐길수 있는 마당을 제공코져한다.



연 극 놀 이

청소년 문화강좌 및 유적지순례

— 청소년의 달 맞아 —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이 고장의 청소년들에게 애향하는 마음씨를 심어 주기 위하여 년차사업으로 계속하는 청소년 문화강좌가 예산문화원 주최 예산군 후원으로 5월 26일부터 5월 31일까지 일주일에 걸쳐 예산문화원 회의실에서 연인원 700여명의 군내 고등학교학생 대상으로 실시 되었다.

강좌 일정을 보면 5월 26일 개강식과 더불어 박종순 예산군수 이교민 예산경찰서장 한용우 예산군교육장의 특강과 「내고장 문



개 강 식



레 크 레 이 션

화」를 이항복 예산문화원장의 강의가 있었고 둘째날인 5월 27일에는 「우리고장 야사」를 전용국 향토 사학자와 「청소년예절」을 예산여고 서정인 교감이 강의 하였고 다음날인 5월 28일에는 「우리고장 고대사」를 향토사학자인 박성홍씨가 「인간성장 발달의 기본조건」을 예산고등학교 이만선교사가 강의 하였으며 5월 29일에는 「내고장 국문학사」를 이상재 임성중학교장이 「청소년기의 바람직한 진로선택」의 제목으로 예산여상

홍광표 교사가 담당하였으며 5월 30일인 토요일에는 「우리문학의 해학성」을 예산중앙종합고 김지화 교사가 「내고장 지명유래」와 문화재 슬라이드 상영을 박병하 문화원 부원장이 강의 하였고 이어서 매헌 합창단의 이선미 단장이 지도하는 레크레이션이 진행되었다.

마지막 날인 5월 31일에는 유적지 순례일정으로 대술면 방산리를 찾아 천방사, 이산

해선생 묘소, 이남규선생 묘소, 삼신도, 아계선생 사당, 이광임선생 고택, 수당선생 고택인 평원정 등을 둘러보며 내고장의 명소와 유적을 답사하고 일주일에 걸친 강의의 피로를 푸는 즐거운 일정을 보냈다.

일주일에 걸친 문화 강좌를 통해 우리고장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며 보람된 일주일이 되었다는 학생들의 소감이었다.



後 記

○ 어렵게 시작한 추사선생 추모 전국서예백일장이 이제 세번째로 年輪을 거듭 해 가고 있다.

○ 초선의 결과 水準이 높아졌다는 초선 심사위원들의 말에 대견스럽게 여겨진다.

○ 해를 더할수록 참여인사들도 늘고 알찬 행사를 마련 하기 위하여 동분서주 하는데 금년의 전국서예백일장에서는 보다 나은 성과를 얻어 가는 상싶다.

○ 서예백일장을 개최하면서 필가들에 보탬이 될상 싶어 秋史筆訣 (續)을 특집으로 마련 하였다.

○ 국역에 田溶國 先生이 맡아 주었고 四君子에 대한 玉稿를 一浪 李鍾祥 教授가 내주었다. 두분에게 감사 드립니다.

○ 점차 인멸해 가는 장승제 (대흥면 하갈신리) 발굴에 의의를 두며 잊혀져가는 民俗을 발굴 하고자 한다.

(朴炳夏)

阮堂先生凌天一笠像



許小痴筆

凌天一笠



發行日 / 1992年 6月 28日

通卷18輯

發行 / 社團 禮山文化院
法人

禮山邑 禮山里 433

☎0458 2-2441番

印刷 / 光明精版印刷公社

禮山邑禮山里723-9

☎0458 33-4102番

2-4102番